

주거지 입지선택에 있어서 고대인의 지형적 인식에 관한 시론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박 지 훈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동향

필자는 수년간 충남 곡교천 유역을 대상으로 제4기 후기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복원된 자연환경에 기초하여 당시 그 곳에 입지했던 취락의 성쇠 요인을 밝히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박지훈, 2004a · 2004b · 2006a · 2006b · 2006c · 2007a · 2007b · 2008a · 2008b ; 박지훈·오규진, 2004 · 2007 · 2008 · 2009a · 2009b, 박지훈·장동호, 2007a ; 박지훈·이상현, 2008; 박지훈·장동호, 2008a · 2008b).

특히 상기 지역에 분포했던 취락의 성쇠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했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지훈·오규진(2008)은 일반적으로 홍수 내지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 고대취락의 소멸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高橋學, 2003), 충남 곡교천 유역의 3개 유적(천안 고재미골 유적, 천안 신방동 유적, 아산 아골유적)을 대상으로 102년 시간 규모(time scale)로 ‘저구릉의 삭박과정사’ 혹은 ‘저구릉에 인접한 곡저의 매적과정사’의 관점에서 소유역의 곡저가 매적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상기 유적들에 당시 거주했던 고대인들의 취락지 소멸과 수전 이용의 불능화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박지훈·오규진(2009a, 2009b)은 충남 내륙의 천안·아산 일대는 청동기시대에 있어서 유사한 자연환경 -지형, 지질, 토양, 기후, 식생 환경-하에 있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저구릉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분포에는 경사도, 표고, 용수하천거리, 용수하상비고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주거입지의 선택에 있어 4개의 요인 중에서도 경사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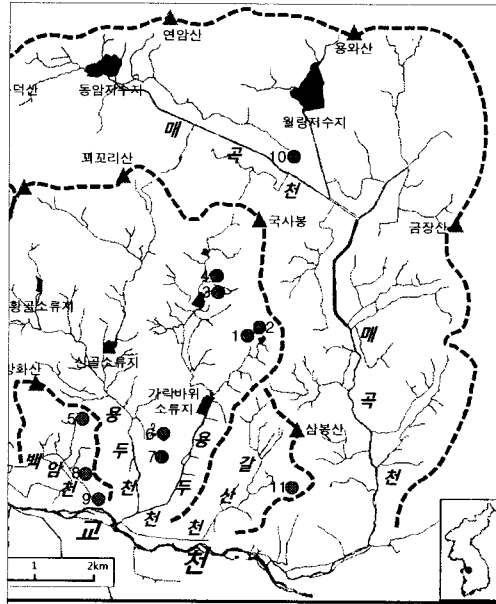
전술한 박지훈·오규진(2009a, 2009b)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관점에서 천안·아산 일대에 거주했던 청동기인들이 주거입지의 선택시 저구릉의 평탄면 또는 완사면을 선호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구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청동기인들이 왜 저구릉의 평탄면 또는 완사면을 선호했는지에 대한 지형학적 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막연히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저구릉의 평탄면 또는 완사면에 입지한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당시 고대인들이 상기의 지형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지형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조사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저구릉을 대상으로 미지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사유적을 구성하고 있는

미지형 단위별로 주거지 수와 주거밀도를 분석하고 사면 미지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지형과 주거지의 분포와의 대응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지역으로는 충남 아산 용두천 유역 및 주변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박지훈·오규진(2009b)에 의해 이미 8개 유적과 4개 지점에서 총 123기의 주거지들이 추출된 곳으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조사유적의 자연환경



1. 아산 명암리유적 5지점
2. 아산 명암리유적 6지점
3. 아산 명암리유적 9지점
4.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
5. 아산 우회도로유적
6.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7. 아산 외골유적
8. 아산 백암리 새논들유적
9. 온양 지방도유적
10. 아산 덕지리유적
11. 아산 갈산리유적

<그림 1> 조사지역의 하계망도 및 조사유적의 위치

<표 1> 조사유적의 자연환경

No.	유적	확인 구역	지형	지질	토양		
					표토토성	퇴적양식	형태적(목)
1	아산 명암리유적	5	구릉	각성석 편마암 화강암	양토	잔적층	Inceptisols
2	아산 명암리유적	6					
3	아산 명암리유적	9					
4	아산 명암리유적	11					
5	아산 우회도로유적	-		호상흑운모편마암			
6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		각성석 편마암			
7	아산 외골유적	-		화강암			
8	아산 백암리새논들유적	-		호상흑운모편마암			
9	온양 지방도유적	-					
10	아산 덕지리유적	-		각성석 편마암	사양토		
11	아산 갈산리유적	-		화강암			

- *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은 아산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1-2지점(가지역)에 해당됨.
- * 아산 외골유적은 아산 탕정 제 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1-2지점(나지역)에 해당됨.
- * 서술의 편의상 天安市 國道代替 迂廻道路(排芳-陰峰) 工事區間內 文化遺蹟과 온양-음봉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제2공구)내 문화유적을 각각 아산 우회도로유적과 온양 지방도로유적으로 약칭함.
- *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대부분은 구릉의 완사면 내지 평탄면에 입지함.

조사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유적(이하 조사유적)은 8개의 유적과 4개의 지점 즉 아산 명암리유적 5지점·6지점·9지점·11지점,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아산 백암리 새논들유적, 아산 외골유적, 아산 덕지리유적, 아산 우회도로유적, 아산 갈산리 유적, 온양 지방도유적이 있고, 이들 유적에서 총 123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이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 최적 환경을 밝히기 위해 먼저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자연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형적으로 보면, 용두천 유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구릉의 완사면 내지 평탄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거지가 입지한 구릉의 지질(해당 유적들의 지질)은 주로 각섬석 편마암 화강암과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주거지가 많이 분포하는 아산 명암리유적과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을 포함하여 5개 유적(4개 지점 포함)이 입지한 구릉은 각섬석 편마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아산 백암리 새논들유적을 포함하여 3개 유적이 입지한 구릉은 호상흑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원개발연구소, 1979).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지가 입지하는 구릉의 토양은 잔적층으로서 토양층위가 발달하기 시작한 단계에 해당되는 인셉티졸(Inceptisol)이다. 또한 조사지역에 있어서 토양의 표토 토성은 아산 갈산리유적이 사양토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양토이다(http://asis.rda.go.kr/soil_intro/asis_0101.asp). 한편, 청동기시대에 조사지역의 식생대는 소나무림 또는 소나무/졸참나무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지훈·이상현, 2008).

이상과 같이 용두천유역 및 주변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선정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일부 지질적 차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사한 자연환경 하에 있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현지에서 구릉지의 미지형 분석·간이측량, 실내에서 조사유적의 항공사진 판독·상세 지형도(1/300~1/2,000) 분석 등을 바탕으로 조사유적에서 凸型 傾斜變換線인 遷急線(convex break of slope)과 凹型 傾斜變換線인 遷緩線(Concave break of slope)의 확인과 추적을 실시했다. 둘째, 田村俊和(1996)를 참조하여(그림 4) 조사유적을 구성하고 있는 미지형 단위로 된 미지형 분류도를 작성했다. 셋째, 작성된 조사유적의 미지형 분류도상에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분포위치를 표시했다. 넷째, 현지 관찰 및 관련 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유적의 토층 상태를 파악했다.

II. 분석결과

조사유적을 대상으로 미지형 분류, 주거지 수 및 주거밀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릉사면의 미지형 분석에 의하면, 조사유적은 크게 12개의 미지형단위 즉 頂部平坦面(Crest flat), 頂部斜面(Crest slope), 上部谷壁斜面(Upper sideslope), 谷頭斜面(Head

slope), 谷頭窪地(Head hollow), 下部谷壁斜面(Lower sideslope), 下部谷壁凹斜面(Lower side-hollow), 침식기원 완사면, 퇴적기원 완사면 [이하 麓部斜面(Footslope)], 小段丘面(Small terrace surface), 谷底面(Bottomland), 水路(Channelway)와 기타 인공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사유적에서 미지형별 주거지 분포수는 정부사면(48기, 39%), 상부곡벽사면(48기, 39%), 정부평탄면(18기, 15%), 하부곡벽사면(7기, 5.7%), 곡저면(2기, 1.6%) 순으로 적어진다.
3. 주거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미지형으로는 곡두사면, 하부곡벽요사면, 완사면이 있다.
4. 미지형별 주거밀도는 1000m²당 청동시시대 주거지의 분포수를 기준(기/1000m²)으로 할 때, 정부평탄면(1.4), 정부사면(0.7), 상부곡벽사면(0.4), 하부곡벽사면(0.2), 곡저면(0.1) 순으로 낮아진다.

III. 결 론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는 특히 정부사면, 상부곡벽사면, 정부평탄면에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거밀도는 정부평탄면, 정부사면, 상부곡벽사면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평탄면이 정부사면 보다 주거밀도가 높은 이유는 정부평탄면이 정부사면 보다 상대적인 면적이 크지 않지만, 정부사면에 비해 경사도가 매우 작으므로 당시 조사 지역에 거주했던 청동기인들이 주거지 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평탄면, 정부사면, 상부곡벽사면은 모두 침식작용이 우세한 미지형으로 유역을 구성하는 다른 미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낮은 곳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표고가 높으며, 특히 침식 진행 속도가 늦어 지형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청동기인들이 주거지 조성시 유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지형 단위 중에서 정부사면, 상부곡벽사면, 정부평탄면을 특히 선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로 사면지형학적 관점에서 구릉의 미지형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역을 구성하는 미지형 단위와 주거지 분포와의 대응관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결과는 향후 한반도 중부지역에 있어서 구릉의 지형발달사 및 이 지역 일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환경 및 입지요인에 관하여 논의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